



#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312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7년 7월 13일 (윤달 5월 20일) 목요일

## 文대통령 “올 여름 휴가는 농어촌에서”

### 김영록 농림부 장관 제안에 화답...자연풍경·관광 인프라 갖춘 전남 혜택 기대

### 22개 시군에 농어촌체험휴양마을 134곳...강진 푸소체험, 대표 프로그램 ‘눈길’

“우리 농어촌에서 여름휴가를 보내지는 대국민 캠페인을 한번 벌여 보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국무회의에

서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제안에 대한 화답한 내용으로 “농·어촌도 전남도가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전남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 자연풍광과 농어촌 관광 인프라에서 뒤지지 않기 때문이다.

“대국민 캠페인”이 실제로 이뤄진다면 전남이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어 전남도가 내심 기대가 크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 22개 시군에 산재해 있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은 134곳이 나 된다.

여수 갓고을마을, 순천만 정방어마을, 나주 문평명하죽빛마을, 구례 오미마을, 장흥 장수풍령어마을, 무안 약초골한옥마을, 완도 청산도느림보마을, 신안 영산도명품마을 등등.

갓김치 담그기, 트랙터 타기, 전통탈곡체험, 맨손고기잡기, 개막이체험, 바지락캐기, 통발체험, 방풍타기, 갯벌 뽕배 타기, 칠게잡이, 쟁쟁어잡기, 시골민박, 두부체험, 밀 낚초만들기, 도예체험, 레프팅, 한옥숙박, 망둥어(운저리)낚시체험, 허수아비만들기, 메주만들기, 천연염색체험, 딱메치기체험, 버섯체험, 소금쪽죽, 황토팩체험, 머드팩체험, 배캐두기 만들기 등 내용도 다양하다.

올해는 강진 푸소체험이 전국 농촌관광 대표 체험프로그램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푸소(FU-SO)는 펠링-업(Feeling-Up), 스트레스 오프(Stress-Off)의 줄임말로 농어촌 집에서 하루 또는 이틀 밤을 지내면서 혼돈한 강진의 정서와 감성을 경험할 수 있다.

푸소체험은 올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시한 ‘지역단위 농촌관광 시스템 구축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기도 했다.

학생, 공무원, 일반인 등 신청자들은 1박 2일이나 2일3박 영랑생가에서 ‘영랑감성학교’ 체험을 비롯해 청자체험, 딱거리·치즈·농어촌·다도·민화체험 등을 한다.

가우도섬 정상에 세워진 세계 최대규모의 청자타워에서 바다를 가르는 공중하강 체험도 한다.

전국 농촌관광코스 10선에 뽑힌 곡성군 농어촌체험하기 좋은 ‘가정마을 코스도’ 각광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곡성기차마을→침곡역→가정역→가정마을 코스로 청정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곡성에서 증기기관차와 레일바이크를 즐기며 때문지 않은 자연 속에서 농어촌체험할 수 있는 코스다.

어촌 체험마을 역시 여수 안도 동고지마을, 함평 돌머리 등 12개 시군, 29곳에서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30만8000명이 방문, 20억 가까운 소득을 올려 올 여름 ‘봄’이 일면 사람들이 더 몰릴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전남 서남해안의 해수욕장과 휴양림 등도 매년 외지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농어촌에서 여름휴가보내기 제안은 농도와 어도인 전남도 입장에서 환영할만한 일이다”면서 “오염되지 않은 자연풍광 자체가 전남의 경쟁력이며, 이번 여름에는 대통령의 제안이 성과를 내 그 어느때보다 농어가 소득이 증대하는 해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무등산입석대 현장실사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위원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위원 등이 무등산 권역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여부를 확인 하기 위해 12일 오후 광주 동구 무등산국립공원 입석대를 현장 실사하고 있다.

## 광주 폭염경보·전남 폭염특보 ‘확대’

### 광주기상청, 무더위 당분간 이어져...외출 자제·건강관리 유의

광주와 전남지역에 폭염 특보가 확대·강화되고 있다.

광주기상청은 12일 오전 11시를 기해 광주에 폭염 경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전남 무안·장흥·화순·나주·함평·영암·순천·광양·여수·보성·구례·곡성·담양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다.

기상청은 연중 이를 가장 최고 기온이 33도를 넘을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주의보를, 35도 이상일 때 폭염경보를 발효하고

있다.

무더위는 당분간 이어지겠으며 오는 15일에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다. 일부 지역에서는 밤 기온이 25도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열대야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기상청 관계자는 “당분간 폭염특보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외출을 자제하고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남규 기자



### 공방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제보 조작사건을 놓고 또 정면 충돌했다. 추 대표는 “국민의당의 대선공약 게이트는 민주당을 짓밟고 헌정을 유린한 죄에 해당한다”면서 김 대표의 작자라는 박지원 선대위원장에게 양심에 따른 행동을 촉구한다. 결국 이유미 단독 변행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의 말로 증명하길 분해서 해답을 내놓으라며 정치적 책임을 지라고 압박했다.

박지원 대표는 “추 대표가 만약 사법부에 남았다면 편향된 시각으로 집권여당 망카뜨리듯 사법부까지 어떻게 되었을까 끔찍하다며 이성을 회복할 것을 촉구했다.

박전 대표는 추 대표의 주장을 조목 조목 반박했다. 박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저와 우리당에 대한 추미애 대표의 계속되는 허무맹랑한 공격에 대해 집권여당의 당대표이자, 담당 수사검사인 가. 답변할 것을 촉구한다며 추 대표의 주장을 일축했다.

정세균 국회의장 등 관련 인사들의 속내를 상상해 본다.

신봉우 기자·자료 사진=뉴시스



행동하는 양심을 본받아

추미애



당담 검사인가, 이성을 회복하라

박지원



중개 지내도 시원찮을 판국에...

정세균

## 노사가 함께 만들어 가는 활기찬 산업현장!

# 노·사 갈등을 넘어 상생할 수 있는 전남노사민정 사적 조정제도가 있습니다

▶ 노·사, 노·노 간에 갈등이 있나요?

- 전라남도 노사갈등 조정해결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 노·사가 서로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에 드립니다.
- 임금, 퇴직금, 해고, 산재 단체교섭 노조활동, 노동문제로 에로사항이 있는 개인이나 기업, 노동조합등 누구든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상담전화 062) 524-9666

**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 · 전라남도 노사갈등조정해결실무위원회**